KOSSDA 제10회 데이터 페어 개최

다양한 질적데이터, 경계 넘나들기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는 지난 1월 2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다양한 질적데이터, 경계 넘나들기'를 주제로 제10회 KOSSDA 데이터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 페어도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YouTube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데이터 페어는 KOSSDA가 10회에 걸쳐 행사를 치르는 중에 처음으로 질적연구와 질적데이터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였는데, 3시간이란 짧지 않은 행사 시간에도 불구하고 YouTube 평균 실시간 동시 시청자 수가 407명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열정적인 시청자 참여도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10회 데이터 페어는 사전신청자 1,108명, 최대 동시 시청자 수 559명, 생중계 총 조회 수 약 2,000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 질적연구 전통과 질적데이터
데이터페어 1부에서는 질적연구 전통에서 질적데이터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는 김향수 박사(청주교대 사회교육과)가 만성질환자들이 참여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질병 서사로 제시한 〈질병서사 연구: 만성통증 서사 유형과 사회적 고통〉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는 김필동 교수(충남대 사회학과)가 2000년대 초반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대규모 마을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마을연구 전통과 다양한 질적데이터의 산출 그리고 자료 아카이빙 중요성을 다룬 〈마을기술지: 충남마을연구(2004-2009)〉를 발표했다.

2. 질적데이터의 유연성과 확장
2부에서는 질적데이터/연구에서의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반영한 세 가지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는 김수영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질적연구 방법론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시도로 인식되는 연역적 접근법, 특히 프레임워크분석방법을 다룬 〈연역적 질적연구와 질적데이터〉를 발표했다. 이어서 주윤정 선임연구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이 질적연구자로서 텍스트마이닝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비정형 데이터(인터뷰 자료)의 텍스트 분석 경험을 담은 〈텍스트마이닝에 대한 질적연구자의 관심과 딜레마〉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추진체제로 리빙랩을 소개하면서 질적연구와 협업 가능성을 제안하는 송위진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리빙랩(Living Lab):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대한을 찾는 공간〉 발표를 끝으로 2부가 마무리되었다.

3. 질의응답

1부와 2부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데이터 페어 'Q&A'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으로 10회 데이터 페어 발표와 질적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과 관련 사전 질문을 받았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의 묘미를 살려 실시간 채팅을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이번 실시간 채팅에서는 해외에서 참여한 시청자들이 새벽 3시,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쫓아가며 질문하는 열정을 보였다. 실시간 채팅에서 자신을 초보질적연구자라고 밝힌 한 명은 연구방법에서 연구수집과 분석의 차이를 제대로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고, 혼자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모든 질적연구자들의 동일한 고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큰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4. 마치며

YouTube를 통한 온라인 행사로는 두 번째 그리고 질적연구와 질적데이터를 주제로 한 행사로는 첫 번째인 이번 10회 데이터 페어는 많은 기대와 고민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치른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질적 데이터 페어는 모든 KOSSDA 구성원들의 빈틈없는 노력과 국내는 물론 해외 시청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YouTube 생중계 총 조회 수 약 2,000회(행사 당일 오후 6시 기준)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질적 데이터 페어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행사가 질적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질적연구에 대한 다양한 고민의 지점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대면이 보편화된 코로나19 시대에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엿본 값진 시간이었다. KOSSDA는 이를 밑거름 삼아 다가올 데이터 페어에서도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방법론을 두고 고민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 페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KOSSDA 데이터 페어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